

음주운전·음주운항...비틀거리는 연말

광주 음주운전 단속 적발 43% 급증 여수서는 해상 충돌 50대 선장 사망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연말 음주운전 사례가 급증하고, 선박의 음주운항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세밀이 '술'로 얼룩지고 있다.

◇광주 음주 사고 속출=연말 각종 모임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광주·전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가 수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날 현재까지 50여일간 광주·전남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에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3554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1646명(46.4%)의 면허가 취소됐으며, 1862명(52.4%)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예년에 비해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159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17명)에 비해 42.8%(478명)나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밤 10시20

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한 도로에서 박모(28)씨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이 사고로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또 같은 날 밤 11시5분에도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 앞 사거리에서 임모(30)씨가 혈중 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가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하기도 했다.

◇죽음 부른 음주운항, 50대 선장 사망=여수해양경찰은 21일 술을 마시고 운항사고를 낸 여수산적 1.88t급 FRP 어선 'S호' 선장 김모(42·여수시 남면)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전날 밤 9시께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 남쪽 0.32km 해상에서 S호를 몰고가다 마주 오던 0.98t급 연안자망어선 'B호'(선장 박모·57)의 좌측 뺨머리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2% 상태에서 고속으로 항해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씨의 어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해지방해경청에 따르면 올 들어 21일 현재까지 전남 해역에서 음주운항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34건에 이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촌 주부들 “동지죽 드세요” 광주시 남구 대촌동 ‘봉충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회장 김영순) 회원 30명이 동지를 맞아 동네 노인들에게 나눠줄 500인분의 동지죽을 쓰고 있다. 동지죽 나눔 행사는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주경찰 직무감사 해달라”

나주시 공무원노조, 경찰청에 ‘강압 수사’ 진정서

나주시 공무원노조가 경찰청에 나주경찰에 대한 직무감사를 요청했다. 21일 나주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초 나주보건소의 방사선 장비 구입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 경찰청에 ‘강압적인 수사를 벌인 나주경찰을 직무감찰 해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나주시가 1억7000만원 상당의 방사선 장비를 2억3400만원에 구입,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로 관계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문제의 방

사선 장비는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아무런 문제 없이 구매했다”며 “경찰이 일부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사무실을 수색한 뒤 컴퓨터를 압수해 갔으며, 언어폭력과 회유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나주경찰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져간 것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언어폭력 등이 있었는지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공포의 유흥주점

택시기사에 돈 주고 만취 손님 유인 술값 바가지

의식 잃으면 몰래 신용카드 결제 ... 88명 1억 피해

업주·종업원 등 7명 구속

택시기사에게 돈을 주고 만취한 손님을 데려오게 한 뒤 바가지 술값을 뜯어낸 ‘공포의 유흥주점’ 업주 부부와 지배인, 여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자영업자 박모(37·순천시 연향동)씨는 지난달 6일 밤 11시55분께 순천시 조례동 N슈퍼마켓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뒤 잠이 들었다.

박씨가 눈을 뜬 곳은 승차지점에서 300m 가량 떨어진 S유흥주점이었다. 택시기사가 S유흥주점 업주인 강모(여·46)씨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박씨를 내려다 주고 간 것이다.

유흥주점 톨 안에는 맥주 10병과 양주 2병, 마른 안주 등이 놓여 있었다. 여종업원 조모(여·40)씨도 앉아 있었다. 조씨는 다른 손님들이 막다 남은 양주와 맥주 등을 섞어 만든 이른바 ‘후카시’를 박씨에게 건네며 부추겼다. 박씨가 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조씨는 박씨의 신용카드도 술값 162만원을 몰래 결제했다. 현금 60만원도 인출했다.

결제를 마친 조씨는 종지배인

황모(22)씨를 불렀고, 황씨는 S유흥주점에서 50m 떨어진 김모(46)씨의 P유흥주점으로 데려갔다. 김씨는 업주 강씨의 남편으로, 아내의 S유흥주점과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을 시켜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박씨의 신용카드를 술값 100만원을 결제했다.

김씨 부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8개월간 범죄행각을 벌여왔다. 피해자는 모두 88명. 피해 금액만도 1억원에 이른다. 강씨 등은 길바닥에 쓰러진 취객·택시에서 잠든 사람 등을 데려오게 한 뒤 바가지 요금을 씌웠다.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경찰은 21일 강씨 등 7명을 특수강도·상습사기·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달아난 강씨의 남편 김씨 등 5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업주 강씨와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토대로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피해자들을 실어 나른 택시기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광주 편의점 강도 잇따라

쌍촌동·마복동서 현금 강탈

연말 광주에서 편의점 강도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에 과한이 침입해 모형 권총으로 종업원(20)을 위협한 뒤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종업원은 경찰에서 “2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남성이 카운터 앞에서 권총을 꺼내 위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습을 토대로 키 180cm 가량에 회색 코트를 입은 용의자를 쫓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오후 7시10분께에도 광주시 서구 마복동 모 편의점에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과한이 업주(여·50)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8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CCTV 화면을 바탕으로 키 168cm 가량에 흰색 모자와 은색 점퍼를 착용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도심 불법광고 대량 부착

나이트클럽 업주 구속

광주 광산경찰은 21일 도심지에 불법광고물을 대량으로 부착해 자치단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의공고물 등 관리법 위반·광주일보 12월 20일 6면)로 모 나이트클럽 업주 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광주 지역 육교, 전신주, 건물 외벽 등에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 3만 3000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혐의다. /이종형기자 golee@



어학연수생 폭행 중국인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21일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냐”며 놀리는 동료 어학연수생을 둔기로 때린 중국인 J(20)씨를 상해혐의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J씨는 J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생활관 앞길에서 어학연수생 중국인 W(22)씨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술 취해 찢질방서 알몸 추태

○~알몸으로 찢질방에서 잠을 자던 40대가 자신을 흔들여 깨운 관리인과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행.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9·노동)씨는 이날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찢질방에서 숙 못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던 중 다른 손님들의 신고를 받고 온 찢질방 관리인 이모(57)씨 등 2명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새벽 1시께 술에 취해 찢질방에 들어와, 옷을 벗고 잠을 자던 자신을 흔들여 깨운 이씨 등과 몸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내가 왜 알몸으로 자고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2010년 국가직/ 지방직 수탁출제에 따른 수험전략/ 채용인원현황/ 바뀌는 시험정보/ 조기합격을 위한 수험대책/ 국가직, 지방직 시험일정 및 거주지 요건정리

공무원 합격실명회

2010년 12월 27일(월) 14:30~ [사전예약접수 중]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증정/ 고급노트증정 종합반교재 5권 20만원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타 학원 공무원 합격설명회 다 들어보시고, 학원선택은 반드시 비교후 소문들고 선택하십시오! 고시학원의 대세는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교행직/ 농업직/ 기술직/ 소방직/ 교정직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합격은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1층 김영편입학원 227-8088

개강
1월
3일